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본격 추진

기숙사, 임대산업시설도 가능

서울시는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 3개 재건축사업조합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총 443세대인 오류동 현대연립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1세대를, 총 672세대인 원효 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4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3세대를, 총 300세대인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29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21세대를

각각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각각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1월 9일, 5월 1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도로·공원·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 완화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보문역 전시 전경.

/서울시

우이신설선서 청년작가 작품 만나다

8월까지 11개역서 289점 전시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11개 역에서 8월 31일까지 '만개: UI Blossom' 전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작가 및 크리에이터 46명이 참여해 사진, 그래픽디자인, 회화, 포스터 등 작품 289점을 선보인다.

솔밭공원역에서는 최재혁 객원 큐레이터가 예술계 주목할 만한 청년작가를 주인공으로 초청해 지하철 역사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전시 '고요한 도시의 봄'을 만날 수 있다.

신설동역에는 정물 사진으로 유명한 '구본창'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담긴 사진작품 6점과 독창적이면서도 장인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여온 '채병록' 디자이너의 일러스트 작품 5점을 전시한다.

보문역에는 이탈리아의 패션 사진

작가인 '미켈레 데 안드레아'가 코로나19 격리기간 동안 예술과 휴머니즘에 대한 열정을 담아 창작한 현대적인 식물사진과 '꽃'을 주제로 한 17-19세기에 그려진 네덜란드 라익스뮤지엄(Rijks Museum)의 소장작품을 한 공간에 전시한다. 성신여대입구역에는 영국의 콜라주 아티스트, '크리스티나 윌리엄스'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는 '오픈전시'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광고 기획자로 유명한 '유대일'을 정릉역에 초청했다.

세계 곳곳의 일상의 순간들을 아름다운 장면으로 담아낸 사진집 '아다지 에토'의 대표작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격리되기 이전의 일상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사각지대 농인 기업 살핀다

한 사업체 최대 49명까지 지원 이달부터 50만원씩 정액 지급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급 가능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해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만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휠체어 사용자 버스 승차거부시 자격취소

(최대)

서울시,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행정처분·지도 등 조치·관리 실시

서울시가 휠체어 사용자의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시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민원 접수를 받는다. 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된다. 시가 직접 민원 접수를 받고,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관리도 실시한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한다.

시에서는 민원을 직접 접수 받은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차거부가 맞을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후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자치구에서 회신 받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분리배출제 시행전 시범운영

서울시는 7월로 예정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홍보와 시범운영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일부 지역은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페트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 플라스틱류로 분류해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두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일 두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서대문둔든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3월 노원구에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서대문구에 이어 영등포·종로구(7월) 등 연내 5개 자치구에 둔든어린이집을 개원하고 2023년까지 20개 구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대문둔든어린이집은 서대문 래미안루센티아아파트 단지 내(서대문구 거북골로 100)에 위치해 있다. 총면적



서대문둔든어린이집.

/서울시

은 378.96㎡이며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유희실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집 정원은 71명으로, 만 0세반(9명), 만 1세반(10명), 만 2세반(14명), 만 3세반(15명), 만 4~5세반(20명), 시간제반(3명)으로 구성된다. 원장 1명, 보육교직원 12명, 조리원 1명 등 총 14명이 아이들을 돌본다. 모든 보육교직원은 NCS블라인드 채용으로 2월 초 선발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1 | 해질 / 19:27

5월
6월 (수)
음력 : 4월 14일

수도권 날씨
27~12°C

연천 9/28, 동두천 11/28, 가평 10/27, 파주 9/27, 서울 12/27, 양평 12/27, 인천 12/22, 수원 12/26, 용인 12/26, 평택 11/28, 백령도 10/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